

《지식인의 종말》이라는 다분히 도발적인 책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식인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지은이는 오늘날 프랑스 지식인들을 '최후의 지식인'이라 부르며 기생충과 같이 쓸모 없는 존재로 몰아부친다. 그러면서 오늘날 프랑스 지식인을 집단자폐증, 현실 이해 부족, 비전 부족, 도덕적 자기만족, 즉흥성을 보이는 환자라고 진단한다.

책갈피산책

《지식인의 종말》

친미디어적 지식인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장

레지 드브레 지음 | 강주현 옮김
예문/A5신/232면/13,000원

이수훈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훌륭한 지식인들을 수 없이 배출해왔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프랑스 지식인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 들뢰즈, 리오타르, 푸코, 알튀세르 등 수없이 많은 이론가들과 사상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런 프랑스 지식인들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적잖은 에너지를 투입한다.

언론과 손잡은 프랑스 지식인들 공박해

레지 드브레는 《지식인의 종말》(강주현, 예문)이라는 다분히 도발적인 책에서 오늘날의 프랑스 지식인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가 '최후의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프랑스 지식인은 기생충과 같이 쓸모 없는 존재이니 그 이름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정말 충격적인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지식인들이 이 지경으로 치부되니 충격이 더하다.

드브레는 프랑스 지식인이 지난 한 세기에 걸친 굴곡 끝에 분별력 있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지성에서 “《르 몽드》에 언젠가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기를 바라면서 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로 타락했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오늘날 프랑스 지식인을 집단자폐증, 현실 이해 부족, 비전 부족, 도덕적 자기만족, 즉흥성을 보이는 환자라고 진단한다. 그는 특히 프랑스 지식인이 언론과 손잡은 것을 통박한다. 지식인의 정치적 포장도 꾸짖는다.

이 문제제기는 한국 지식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식인의 사

회적 책무 가운데 하나로 비판과 공공영역의 확장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언론은 매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데 언론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역시 프랑스처럼 언론이 '제4의 권부'인 한, 지식인이 언론과 접할 때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식인이 시정잡배와 진배없이 설치고 거침없이 발언하는 행동은 드브레가 말하는 '최후의 지식인'이나 할 것이다. 지식인은 항상 사려가 깊어야 하고, 노골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에 오르내려서는 곤란하다. 지식인이 그렇게 되면 자칫 본분인 연구와 교육에 소홀해지기 쉽고, 신문 머릿기사나 쫓아다니기 십상이다.

지식인의 비판과 견제기능 놓치지 말아야

국가나 정치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영역이야말로 한국과 같은 후진적인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명함을 내밀어선 안될 것이다. 오직 비판과 견제의 기능만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제시된 비전이 권력자들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 있다. 이 연결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의 정치 개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왕에 그래왔듯이, 그 참여는 대체로 정당화 구실 아니면 개인의 입신영달에 그칠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의 제도정치권 개입은 항상 '긴장적'이라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공리주의적인 지식인상이 크게 강조됐다. 정치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서 지식인 사회를 크게 흔들어놓았다. 지식인이 지성으로 남아 있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자연히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학문하는 일이 쉽지 않다. 즉흥적인 결과를 내놓으라고 볶아대기 때문이다.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을 걸치거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알려놓지 않았다가는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도 김대중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식인들이 언론과 손을 잡지 못해 안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인사정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식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이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들어 한층 심화된 것 같다.

한국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비판과 공공선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정치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절대적으로 긴장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지식인이 정치인을 닮아가 결국 드브레가 말하듯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

이수훈 교수는 존스 홉킨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세계체제론》(위기와 동아시아 자본주의) 등이 있다.